



지난 10년간 고령자의 의식 변화

이상우 수석연구원

- 2015년 고령자는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인식함. 2015년 고령자는 2005년 고령자보다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지만 약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음. 2014년 고령자는 2016년보다 자녀 등 장남을 중심으로 한 가족에 의한 부모 부양책임 의식이 절반 정도 감소한 반면 스스로 또는 가족·정부·사회의 부양책임 의식은 크게 높아짐. 향후 명확한 역할 분담에 의한 균형 있는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고령자는 2005년보다 전반적인 생활여건 변화가 큰 폭(35.8%p)으로 좋아진 것으로 인식함.
 - 항목별로는 <표 1>과 같이 사회보장제도(48.1%p), 문화·여가생활 향유 여건(35.7%p), 보건의료 서비스(34.6%p)의 순으로 개선됨.
 - 그러나 고령자의 41.9~52.6%는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함.

<표 1> 전반적인 생활여건과 각 항목별 변화

연도	전반적인 생활여건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문화·여가생활 향유 여건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2005	14.5	50.5	35.0	30.5	58.6	10.8	17.4	67.8	14.8	14.7	68.1	17.1
2007	19.1	52.6	28.3	38.4	53.0	8.6	23.3	65.5	11.2	20.8	64.3	14.9
2009	26.1	47.0	26.9	52.3	41.1	6.6	39.5	51.4	9.1	26.4	57.9	15.7
2011	31.6	42.4	26.0	48.9	40.9	10.2	40.8	45.9	13.3	33.7	51.7	14.6
2013	29.0	49.0	22.1	46.6	46.5	6.9	39.6	52.2	8.3	32.9	57.1	10.1
2015	50.3	41.9	7.8	65.1	31.6	3.3	65.5	30.4	4.1	50.4	44.7	5.0

자료: 통계청(2016. 9. 29), 『2016 고령자 통계』.

■ 2015년 고령자는 2005년 고령자보다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므로 아직 노후준비의 취약성이 존재함(표 2) 참고).

-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고령자 비율은 2005년 34.7%에서 2015년 46.9%로 12% 이상 높아짐.
 - 하지만 2015년에도 고령자의 약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아 고령자의 노후준비 취약성을 드러냄.

〈표 2〉 노후준비 유무와 노후 준비방법

연도	준비하고 있음								준비하고 있지 않음				
		계	국민연금 등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금적금	부동산	기타		계	준비능력 없음	자녀에게 의탁	기타
2005	34.7	100	35.5	7.1	5.2	34.4	16.4	1.4	65.3	100	43.2	47.5	9.3
2007	34.7	100	31.8	8.2	5.3	34.8	19.1	0.8	65.3	100	45.7	47.0	7.3
2009	39.0	100	41.0	11.5	4.1	28.0	14.1	1.2	61.0	100	54.4	39.5	6.1
2011	40.1	100	42.9	10.8	3.4	27.5	13.6	1.9	59.9	100	54.8	36.8	8.4
2013	42.4	100	45.0	5.2	5.1	27.4	14.8	2.5	57.6	100	51.9	40.7	7.4
2015	46.9	100	42.2	7.5	5.0	28.9	15.1	1.2	53.1	100	56.3	34.6	9.1

자료: 통계청(2016. 9. 29), 『2016 고령자 통계』(사회조사¹⁾ 결과에서 65세 이상을 추출한 데이터).

- 2015년 고령자는 국민연금 등(42.2%), 예·적금(28.9%), 부동산(15.1%), 사적연금(7.5%), 퇴직급여(5%)의 순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음.
 - 과거보다 국민연금 등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예·적금, 부동산, 퇴직급여, 사적연금 등은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음.
- 한편, 2015년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고령자들은 과거보다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함.

■ 2014년 고령자는 2006년보다 가족에 의한 부모 부양의식이 큰 폭으로(33.2%p) 감소함(표 3) 참조).

- 스스로 또는 가족·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현저하게(각각 10.1%p, 20.8%p) 높아짐.
-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2014년)은 가족·정부·사회(35.7%), 가족(34.1%), 스스로(23.8%)의 순으로 높음.
 - 2014년 고령자는 2006년보다 장남에 의한 부모 부양의식이 크게 감소(26.0%p)한 반면, 모든 자녀가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크게 증가(33.4%p)함.

1) 통계청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부문별 2년 주기)되나 시기별 조사항목이 가감되어 다소 차이가 있음.

〈표 3〉 부모 부양견해와 부양책임자에 대한 인식

연도 ¹⁾	계	스스로	가족	가족, 정부, 사회	정부, 사회	기타	가족 중 부모 부양자				
							계	장남	모든 자녀	자식 중 능력자	기타
2006	100	13.7	67.3	14.9	4	0.1	100	40.2	29	18.9	11.9
2008	100	16.5	48.1	29.9	5.5	0	100	33.1	41.9	15.7	9.3
2010	100	18.4	38.3	37.8	5.5	0.1	100	28.2	47.8	14.3	9.6
2012	100	22.3	36.6	34.6	6.4	0.1	100	16.7	60.8	16.4	6.1
2014	100	23.8	34.1	35.7	6.4	—	100	14.2	62.4	17.8	5.7

주: 1) 2015년은 조사에서 동 설문항목이 제외됨.

자료: 통계청(2016. 9. 29), 『2016 고령자 통계』.

- 이상과 같이 절반 이상의 고령자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자녀에 대한 노후 의존도 및 가족 부양 의식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가족·정부·사회의 명확한 역할분담에 의한 균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kiri](#)